

광주시, '정율성'으로 한중관계 회복 꾀한다

강기정 시장 등 대표단, 中베이징 방문 딸 정소제·손자 검봉씨와 문화교류 협의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 자산인 안중근 의사와 정율성 선생을 매개로 한중 관계의 회복을 꾀하는 데 주력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와 손자 검봉씨를 정 여사 자택에서 만나 정율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 한중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여사는 한중우호협회 이사이자 중국음악 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정율성 선생 기념 사업을 통해 한중 문화예술 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자인 검봉씨는 정율성음악기획단 문화기획가로 한중 청소년 교류와 정율성 기념사업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정 여사는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3·1행진곡' 악보 복제본과 선생의 생애와 창작 활동 흐름이 정리된 '정율성 연보' 책자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광주시는 한국에서 개최했던 정율성음악제 영상(DVD)과 학술포럼 자료집 등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오른쪽에서 세 번째) 여사와 손자 검봉(맨 왼쪽)씨를 정 여사 자택에서 만나 정율성의 생애와 음악 활동, 한중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베이징=기수희 기자

정소제 여사는 "아버지는 생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다"며 "광주에서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달해주셔서 더없이 반갑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삶의 가치를 기

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많은 중국인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광주를 방문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여사는 부친에 대해 "언제나 자유와 독립

을 염원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운동에 매진하셨다"고 회고하며 "(아버지가) 항일을 위해 중국에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여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율성 선생의 유족을 건장한 모습으로 중국 현지에서 직접 뵈게 돼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광주는 정율성 선생의 고향으로서 선생의 음악과 정신이 한중 우호·교류의 자산으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광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앞서 지난 7일 중국 하얼빈시 다오리구에 위치한 '정율성기념관'과 '안중근기념관'을 잇따라 방문, 이들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며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상호 문화적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율성기념관은 선생의 생애와 음악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악보·사진·음반·바이올린·만돌린 등 300여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특히 선생의 음악 활동과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인기가 높다.

대표단은 특히 광주시가 발간한 정율성 선생 악보집과 학술 포럼 자료집을 정율성기념관에 기증했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8일엔 하얼빈시 정부를 방문, 왕허성(王赫生) 시장을 면담했다.

/중국 베이징=기수희 기자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 '대숲맑은담양쌀' 최우수상 '해남 '뫡곶햇쌀' 우수상 '나주 '왕건이담년쌀' 우수상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우수상 '장흥 '아르미쌀' 장려상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장려상 '영암 '달마지쌀' 장려상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장려상 '무안 '황토랑쌀' 장려상 '진도 '보배진미쌀'

'대숲맑은 담양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

품질·품위·식미 평가 우수성 인정 최우수상엔 해남 '뫡곶햇쌀' 영예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전남도가 선정한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전국 최고 명품 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전남 쌀의 생산·유통을 견인한 대표 브랜드에 수여되는 상이다.

평가 결과, 대상엔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해남 '뫡곶햇쌀'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나주 '왕건이담년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장흥 '아르미쌀'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엔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영암 '달마지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무안 '황토랑쌀', 진도 '보배진미쌀'이 각각 선정됐다.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은 품질·품위·식미 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남 '뫡곶햇쌀'은 국산 품종인 '새청무'를 기반으로 철저한 미질 관리와 우수한 밥맛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남도는 2005년부터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를 추진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분야별 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하고 품종 혼합여부, 품위·품질, 안전성 검사, 식미평가 등을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엄격하게 평가했다.

식으로 엄격하게 평가했다.

선정된 10개 브랜드에는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비 총 1억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이 탐스러이른 결실인 전남 쌀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도록 유통 판로 확보와 RPC 시설 현대화 등 생산·유통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전남 쌀의 고품질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이번엔 선정된 10대 브랜드 쌀을 비롯해 광주지역 쌀 제품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완도 해상가두리 고수온 대응 이동진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올해 여름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에 따른 완도 어류 해상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13일 '고수온 선제적 양식장 관리 및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온 예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C 이상 높고 상승 속도도 빠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양식여가의 사전 대비와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함께 완도 신지·고곡면 등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 지원에 나선다.

합동 이동 진료에선 고수온기에 취약한 세균성·기생충성·바이러스성 질병 정밀 검사와 사육 밀도·사료 공급량 조절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에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 지도와 항생제 오남용 방지 교육을 맡아 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또한 양식여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생충 구약품과 방역 예방 물품을 현장에서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 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